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 이 상 현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제주 4.3 기념관 계획안

제주시 북촌리 너븐승이를 중심으로

2019년 2월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강 수 정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제주 4.3 기념관 계획안
제주시 북촌리 너븐승이를 중심으로
A Design study of Jeju 4.3 memorial
considering the history and place

이 논문을 건축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18년 11월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강수정

강수정의 건축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준 성

심사위원

정 태 용

심사위원

이 상 헌

2018년 12월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목 차

그림목차	iii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제주 4.3 사건의 개요	1
제 2 절 제주 4.3 기념관의 필요성	3
제 2 장 기념관으로서 건축	5
제 1 절 Monument에서 Memorial로	5
1. Monument 와 Memorial 의 정의	5
2. Monument에서 Memorial로의 변화.....	7
제 2 절 역사성과 장소성	8
1. 기념관의 역사성.....	8
2. 기념관의 장소성	8
3. 역사성과 장소성의 관계	9
제 3 장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기념관 사례	11
제 1 절 Daniel Libeskind 의 Berlin jewish museum	11
1. 개요	11
2. 건축적 요소	12
제 2 절 Michael Arad 의 9.11 Ground Zero New York	14
1. 개요	14
2. 건축적 요소	15
제 3 절 Maya Lin 의 Vientiane War Memorial.....	17
1. 개요	17
2. 건축적 요소	17
제 4 장 소결	19

제 5 장 대상지 분석.....	20
제 1 절. 대상지 현황.....	20
1. 대상지 현황	20
2. 너븐승이의 문제점	21
제 2 절 대상지의 역사성과 장소성	22
제 6 장 기념관 계획안	23
제 1 절. 기본계획	23
1. Design Process	23
2. 동선계획	26
3. 배치 및 평면계획	28
제 2 절 최종계획안	30
1. Site Plan.....	30
2. Floor Plan	31
3. 공간 별 시나리오 계획	33
4. Section	40
5. 외부 투시도	43
제 3 절 통합설계	44
1. 구조계획	44
2. 냉난방 및 환기계획	45
3. 무장애 및 피난 계획	46
제 7 장 결론	49
참 고 문 헌.....	50
부 록	52
국문초록	53

그 림 목 차

<그림 2-1> Monument 의 대표적 사례_스핑크스.....	5
<그림 2-2> 역사성과 장소성의 관계	9
<그림 3-1> Jewish Museum 의 전경	11
<그림 3-2> Jewish Museum 의 외부형태	12
<그림 3-3> Jewish Museum 의 내부이미지	13
<그림 3-4> 9.11 Ground Zero New York	14
<그림 3-5> 마이클 아라드의 초기안	15
<그림 3-6> 9.11 Ground Zero New York 내부	16
<그림 3-7> Vientiane War Memorial Washington D. C 의 전경.....	17
<그림 3-8> Vientiane War Memorial Washington D. C 기념비	18
<그림 5-1> 너븐승이 현황.....	20
<그림 5-2> 너븐승이 기념관 조성 현황	21
<그림 5-3> 너븐승이 기념관 파노라마 이미지	21
<그림 5-4> 애기무덤	22
<그림 6-1> 현재 애기무덤과 기념관 사이 도로	24
<그림 6-2> 변경 후 대지 경계선	25
<그림 6-3> 내부와 외부 동선 계획	26
<그림 6-4> 동선 다이어그램	27
<그림 6-5> 배치 다이어그램	28
<그림 6-6> 공간 시나리오 계획	29
<그림 6-7> Site Plan.....	30
<그림 6-8> 지상층 평면도.....	31
<그림 6-9> 지하층 평면도.....	32
<그림 6-10> 진입공간	33
<그림 6-11> 전시실 1.....	34
<그림 6-12> 영상실	35

<그림 6-13> 전시실 2.....	36
<그림 6-14> 체험관	37
<그림 6-15> 전시실 3	38
<그림 6-16> 상생의 길	39
<그림 6-17> 추모공간	39
<그림 6-18> A-A' 단면도	40
<그림 6-19> B-B' 단면도.....	41
<그림 6-20> C-C' 단면도.....	42
<그림 6-21> D-D' 단면도.....	43
<그림 6-22> 얘기무덤에서 바라본 기념관	44
<그림 6-23> 기념관 진입로	44
<그림 6-24> 통합설계-지하층 외벽	45
<그림 6-25> 통합설계-냉난방 및 환기	46
<그림 6-26> 통합설계-장애인 경사로	47
<그림 6-27> 통합설계-장애인 화장실	48
<그림 6-28> 통합설계-장애인 승강기	48
<그림 6-29> 통합설계-피난 계획	49

제1장 서 론

제 1 절 제주 4.3 사건의 개요

2018년은 제주 4.3 사건이 발발한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제주 4.3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일어난 대학살 극으로 남북한의 이념갈등이 발단이 되어 봉기한 남로당 무장대와 미군정과 국군, 경찰 간의 총돌과정과 이승만 정권 당시 벌어진 초토화 작전 및 무장대를 학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제주도 많은 주민이 억울하게 희생당했으며, 제주 4·3은 해방 후 혼란기에 발발하여 우리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사건이다.

이후 오랜 기간동안 제주 4·3은 제주도에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되는 단어였으며,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에 책임이 있기에 은폐해왔었다. 6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 넘어 폭동, 항쟁, 사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 온 제주 ‘4·3’은 1996년 민간인희생자유족회와 연구소가 ‘폭동’이나 ‘항쟁’과 같은 극단적인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합의를 도출해내면서 가치 중립적인 논의로 ‘4·3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넘어서야 후대에서 과거의 아픔을 정리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1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및 공포됨으로써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 2003년 3월 29일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¹를 발표하게 되었으며, 10월 15일 진상조사보고서를 최종 확정하였다.

¹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 4·3 특별법’의 목적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으며, 4·3 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는 별도로 되지 않았다.

여기서 보면 2 만명에서 3 만명에 이르는 무수히 많은 주민들이 대부분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었음을 알려준다. 더욱이 10%를 상회하는 노약자에 대한 무차별 살상은 4·3 사건을 진압한 국가 공권력의 인권유린 실태를 보여준다고 서술되어 있다.² 그리고 정확한 희생자의 명수를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신고된 희생자 수는 14,028 명으로 이 숫자로는 4·3 사건의 전체 희생자 수로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제주 4·3 특별법이 통과되어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에서 3 차례 접수기간에 걸쳐 희생자 신고를 접수 받았으나 여전히 레드 콤플렉스 의해 여전히 미신고 희생자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또한 접수 기간 내에 항시적인 희생자 신고 접수가 어려워 희생자 신고를 상설화 할 수 있는 법령이 아직 재정이 되지 않아 10 만명정도가 되는 희생자를 기리기엔 부족한 현실이 였다. 이로 인해 미신고자와 미확인 희생자가 제주도 전역에 많기 때문이다.

이 후 박근혜 정부는 2014년 3월 24일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였고 4·3 희생자 국가 추념일 지정으로 제주 4·3 사건이 제주를 넘어 국가적 의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국가적 의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확한 희생자부터 여야의 합의가 명확히 도출되지 못하여 여전히 사건이 정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남아있는 유족들은 아직도 아픔과 슬픔을 가슴 속에 묻고 살아가고 있다.

²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도서출판 선인, 2003.12.15

제 2 절 제주 4.3 기념관의 필요성

건축에서의 기념은 과거의 특성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여 그 흔적이나 존재 자체를 기념하는 것이다.

제주 4.3 은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으며, 잊고 싶은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이다. 제주 4.3 은 제주도에서 잊고 싶지만 잊히지 않은 역사적 비극이며, 지울 수 없는 가장 큰 아픔이다. 이러한 상처는 제대로 규명되고 상처는 치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제주도에는 4.3 사건 당시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너븐승이 4.3 기념관을 비롯하여 진아영 할머니 삶터 등 제주도 전역에 걸쳐 4.3 당시의 흔적들이 넓게 분포되어 남아있다. 이렇게 제주도 전역에 아픔이 남아있는 제주도에 중산간 지역이라는 명목 하에 제주 4.3 평화공원이 조성되어 전혀 역사성과 관련이 없는 위치인 중산간 지역인 제주시 봉개동에 건립되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건축공간은 사건 당시의 아픔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 제주도의 아픔이 묻어나는 장소가 제주도 전역에 걸쳐 있지만 그 중 가장 메인이 되는 제주 4.3 평화공원은 전혀 역사적 관련이 없는 위치에 조성되었다. 건립 당시 도지사의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독단적인 행동으로 지어진 이 곳은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사건 당시 가장 큰 피해 마을로 제노사이드의 대표적인 장소로 이야기되는 북촌리 너븐승이에 제주 4.3 사건 70 주년을 기념하여 사건 당시의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희생자의 넋을 기릴 수 있는 기념관을 계획하려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념관의 경우 당시 시대적 사건에 대한 인물의 자료나 유품 따위를 보관하고 보여주기 위한 공간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의 개념을 가지고 구성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의 기념관은 도시 속에서 과거-

현재-미래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모든 기념비는 각각의 고유한 개별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연속적이고 순차적인 것으로써 기념비 없이는 시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³

건축은 장소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시각화로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든다. 장소성은 다른 공간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며 그곳만의 강한 개성적인 영역을 만들어내고, 장소가 지니는 본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장소성은 건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기념관에서 장소성과 역사성은 필수 요소라고 생각되며, 건축에서 장소에 담긴 의미를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공간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가치를 가진 장소의 이야기는 해당 장소 속의 이야기로 풀어 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과거 그 시대의 상처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렇기 때문에 계획할 기념관의 공간은 기존에 존재하는 사건과 기억에 대한 전시공간이 아닌 북촌리 너븐승이 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이용하여 공감을 이끌어내고 감동을 줄 수 있으며,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려 한다

³ 한갑석, 『한국 현대건축에 있어서 기념비성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2004. 02.

제 2 장 기념관으로서 건축

제 1 절 Monument에서 Memorial로

1. Monument 와 Memorial의 정의

기념은 기억을 전달하는 행위, 즉 어떤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함이라는 뜻이다.⁴ 우리는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조각이나 구조물로 남기거나 그 흔적이나 존재 공간으로 만들어서 자체를 기념하고 있다. 과거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이 계속해서 과거를 반성하게 하고 후대에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를 다시 회복하여 아팠던 과거를 치유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2-1> Monument의 대표적 사례_스핑크스⁵

⁴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기념”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 (2018.12.15)

⁵ 사진출처 (<https://ko.wikipedia.org>)

이러한 기념의 의미를 두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Monument 는 기념적인 목적을 위해 제작된 일종의 공공조형물을 총칭하는 용어⁶로 사람이나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각, 건물, 다른 구조물을 의미한다. Monument 의 목적은 어떤 사건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막고 미래 세대의 의식 속에 영원히 생생하게 남겨놓는 것이다.⁷. 위대한 업적의 영웅과, 공동체의 이상적 기억을 영속적으로 후대에 널리 알리려는 상징적인 오브제를 구축해 이를 오랜 기록으로 후대까지 전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Monument 인 고대 이집트의 스팽크스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과거의 Monument 는 보존해야 할 집단적 기억이나 사건을 상징성을 띠는 오브제를 구축해 전하고자 하는 기억을 하나의 형태로 고정시켰다.

Memorial 은 앞서 서술한 Monument 보다 좀 더 다양한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다. 과거의 인물, 사건, 장소 들을 대상으로 하고 과거의 특성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여 그 흔적이나 또는 존재 자체를 기념하는 것이다. Memorial 에서 재현되는 기억들은 시간적으로는 과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재현되는 것은 현재를 대상으로 한다⁸. Memorial 은 사용자들에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공간적인 체험을 유도하고 현실과 사건을 중첩하는 시간의 매개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념할 만한 내용을 다루지만 긍정적인 의미로서 영웅이나 사건을 치하하는 것에서부터 홀로코스트처럼 대학살 같은 범죄에 이르는 부정적인 의미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사건의 기록과 보존을 넘어서 추모와 치유의 공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⁶ 네이버, “네이버 지식백과-Monument”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94212&cid=42642&categoryId=42642>>, (2018.12.15)

⁷ 윤태건, 『사회적 애도를 위한 메모리얼 연구: 그라운드 제로 메모리얼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6.02

⁸ 윤선영,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과 911 기념관의 전이공간 비교연구』, 인천가톨릭대학교 조교수, 2015.01

2. Monument에서 Memorial로의 변화

Monument는 앞서 서술한 내용과 같이 기념적인 목적을 위해 제작된 일종의 공공 조형물 일반을 총칭한다. 주로 과거에 보존해야 할 집단적 기억이나 사건을 상징성을 띠는 오브제를 구축하여 전하고자 하는 기억을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며 주로 과거의 권력을 상징하였다.

Monument가 세워지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주로 조국을 위한 희생을 통하여 주권을 지키는 것을 국민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로 치켜세우고자 노력하였으나, Monument가 Memorial로 변화를 하게 된 계기로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대두된 구소련의 사회주의, 이탈리아의 파시즘⁹, 그리고 독일의 나치즘이 Monument를 체제의 선전도구로 남용하며 내부의 힘을 단결시키기 위하여 하나의 강력하고 강압적인 상징으로 군림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역압성이 떨어진 상징물처럼 바라보기 시작하였고, 기념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근대 전 전쟁에서 승리, 영웅의 죽음을 기리거나 과거의 사건을 일차원적으로 담아낸 것을 기념비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 이르러서 기념비적 건축물에 대한 해석과 이해의 깊이가 달라졌다. 기존 근대적 사고로 영웅을 칭송하거나 권력을 상징하는 오브제에서 사용자의 일상에서 연속적인 경험을 통해 그 사건을 인지하게 하고 다 차원적인 감각적 공간체험을 유도하여 사건과 현재를 연결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⁹ 파시즘이란, 정치적으로 급진적이며 반공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수주의적인 정치 이념이자 국가자본주의, 협동조합주의 경제 사상을 일컫는다.

제 2 절 역사성과 장소성

1. 기념관의 역사성

역사성이란, 역사적인 성질¹⁰이라 표준국어대사전에 정의 되어있다.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해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역사성이라 판단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역사성은 인간 존재를 구성하며, 이에 따라 시간성으로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시성하는 통일로서 시간과 연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건축에서 이 역사성의 의미는 주로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기념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된다. 기념관 설계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다.

2. 기념관의 장소성

모든 장소는 그 장소만의 특성을 갖는다. 장소에는 성격이 있고, 심리적으로 다른 것과 구별되는 공간이다. 그 장소가 갖는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 장소를 이해하며, 맥락을 읽음으로써 부여된 질서를 통해서 의미를 갖는 건축에 접근한다. 장소의 개념은 20 세기 중반이후부터 다시 부각된 개념이다.¹¹ 장소는 단순히 위치를 뜻하는 개념을 넘어서 어떠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개념이다. “장소는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다”라는 말처럼 인간은 체험을 통해 어떤 공간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장소 생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장소의 맥락을

¹⁰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역사성” < <http://stdweb2.korean.go.kr/> >, (2018.12.16)

¹¹ 안우전, 『건축의 장소성을 체험하는 공간 시퀀스 구조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2003. 08.

이해하고 장소만의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소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

3. 역사성과 장소성의 관계

역사성과 장소성은 서로 상호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소성은 역사성, 문화성, 사회성의 의미도 함께 포함하며, 수많은 기억들과 시간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장소성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역사성과 장소성은 서로 연결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의 아팠던 모습을 애도하거나 그 사건의 상징성을 장소 내에 의미가 드러나도록 독특한 시간적 지층을 드려냄으로써 역사적인 맥락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장소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1> 역사성과 장소성의 관계

이러한 맥락을 표현하면서 보여지는 공간이 바로 기념관이라 생각된다. 기념관은 인물 중심 기념관의 경우 그 인물이 태어나거나 성장한 장소(생가 터, 학교 등) 또는 인물이 죽어서 안치된 장소를 택하며, 사건

중심 기념관의 경우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택함으로써 기념 대상과의 연관성을 찾고자 한다. 연관성을 가지고 보면 기념관은 상징성, 애도 등의 의미가 포함된 과거의 역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당시 안치된 장소나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택함으로써 역사성과 장소성을 함께 공간으로 표현된다고 생각된다.

제 3 장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기념관 사례

제 1 절 Daniel Libeskind 의 Berlin Jewish museum

1. 개요



<그림 3-1> Jewish Museum 전경 ¹²

2001년 대중에 공개된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은 유대인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유대인의 학살에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4세기부터 현재까지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의 사회, 정치, 문화적 역사를 전시하고 있으며, 1735년 완공된 러시아 사법 재판소 부지 옆에 있는 새 건물은 현재 새 건물의 입구로 사용되고 있다

¹² 사진출처 (Studio Libesk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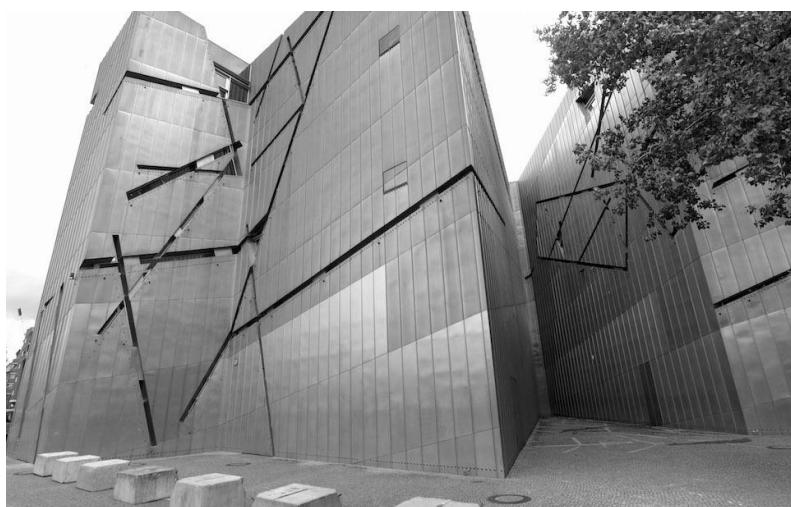
2. 건축적 요소

“선들사이 (Between the Line)”

유대인 대학살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계되어진 공간으로 전후 독일에서 처음으로 유대인 대학살의 영향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 사건의 역사성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표현이 나타난다.

리베스킨트는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구현을 위해 3 가지 사항을 전제로 삼았다.¹³

- 가) 베를린 역사에 기억한 유대인들의 광대한 지적, 경제적, 문화적 공로를 발견
- 나) 베를린의 기억과 양심에 홀로코스트의 의미를 물리적, 정신적으로 결합할 것
- 다) 보이드의 인식과 결함을 통한 유대인의 말살의 치유



<그림 3-2> Jewish Museum 외부형태¹⁴

¹³ 정태용, 『리베스킨트의 유대인 박물관에 나타난 건축 개념 비교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2014. 04

¹⁴ 사진출처 (<http://urbantoronto.ca/news>)

구성은 기존의 베를린 박물관을 증축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인데 단순히 박물관이 아니라 유태인의 아픔을 Void 를 통해 역사성을 전달하려 했다.



<그림 3-3> Jewish Museum 내부 이미지 ¹⁵
(좌측으로부터 진입계단, 가운데 전시장입구, 외부 사선 패사드의 내부 창)

방문객은 기존 건물로 들어가 입구를 통해 지하로 내려간다. 기존 건물은 지하를 통해 새로운 건물과 연결된다. 지하로 내려가는 길은 세개의 축으로 이어지며, 각각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첫번째 축은 연속의 계단으로써 박물관의 전시공간을 뚫고 지나간다. 두번째 축은 건물에서 나와 베를린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을 추모하는 호프만 가든과 연결되며 세번째는 막다른 골목인 홀로코스트 보이드로 이끈다. ¹⁶ 이러한 지그재그 라인과 보이지 않는 직선이라는 두개의 라인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두개의 선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건물을 지나는 ‘void’가 있다. 보이드는 ‘빈 공간’ 즉, 부재의 공간은 홀로코스트의 기억과 무거운 진공, 차가움, 어두움, 불안함 등을 느끼게 하며, 이와 함께 가늘고

¹⁵ 사진출처 (Studio Libesk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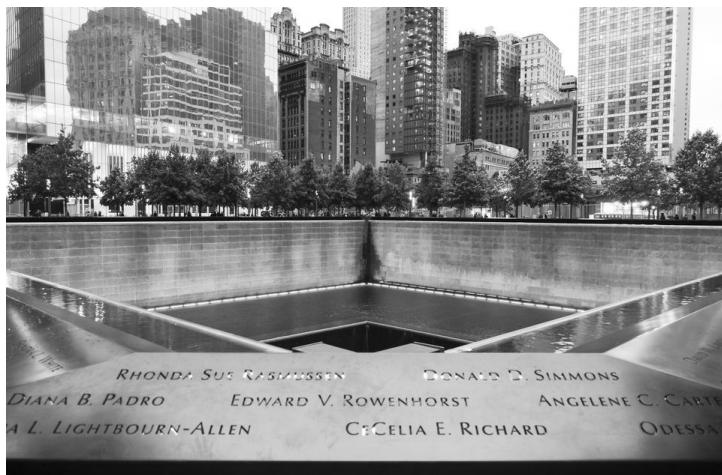
¹⁶ Studio Libeskind, <https://libeskind.com/work/jewish-museum-berlin/>,
(2018.12.22)

날카로운 빛은 유대인들의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 역사, 독일에서의 이민, 홀로 코스트와의 연속성을 통해 유대인의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2 절 Michael Arad 의 9.11 Ground Zero New York

1. 개요

Ground Zero New York 은 9.11 테러를 추모하기 위해 트윈타워의 무너진 곳에 건설된 뉴욕의 기념관 및 박물관이다. WTC 사이트 국제설계 공모전에서 당선된 Michael Arad 의 ‘기억의 토대(Memory Foundation)’의 컨셉으로 그 당시 트윈타워가 무너진 두 개의 영역을 그대로 비워 지상을 공원화 하고 지하를 기념관으로 조성하였다.



<그림 3-4> 9.11 Ground Zero New York¹⁷

¹⁷ 사진출처 (<https://www.911memorial.org>)

2. 건축적 요소

‘기억의 토대(Memory Foundation)’



<그림 3-5> 마이클 아라드의 초기안¹⁸

미국에서 테러로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본 사건인 9.11 테러를 강력하게 상기시킬 수 있는 Memorial 이다. ‘기억의 토대(Memory Foundation)’이라는 컨셉에 맞춰 트윈타워가 무너진 두개의 자리에 그대로 비워 지상을 공원화 하고 지하를 전시장으로 계획하였다. 이렇게 비워 둠으로써 나타난 강한 상징성이 기존 다른 계획안과 차별화를 가져와 다른 극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¹⁹ 있어야할 자리에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시켜 부재의 의미를 더 부각시켜줄 수 있으며, 과거의 시간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된다.

이 개념은 사라진 건물을 기억하기 그대로 흔적을 보여주며, 흔적을 그대로 비워 둠으로써 장소성의 요소가 드러난다. 여기에 물이라는 요소를 이용하여 물소리와 함께 대리석에 새겨진 희생자들의 이름을 보면서 추모의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

¹⁸ 윤태건, 『사회적 애도를 위한 메모리얼 연구_그라운드 제로 메모리얼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02

¹⁹ 홍원표, 『건축적 시나리오를 통한 서대문 독립 명예의 전당 계획안』,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2017. 02



<그림 3-6> 9.11 memorial 의 내부 전시관²⁰

계획된 동선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보면 테러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 지하 공간은 사고당시의 잔해를 그대로 남겨두어 그 당시 처참했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과거의 기억을 느끼게 해주며 추모의 감정이 들 수 있도록 하였다.

²⁰ 사진출처(<https://www.911memorial.org>)

제 3 절 Maya Lin 의 Vientiane War Memorial

1. 개요

양쪽 끝 링컨 메모리얼과 워싱턴 모뉴먼트를 향해 있는 이 메모리얼은 중앙부로 이동하게 되면 지면이 점점 낮아진다. 이 지면 레벨차이를 이용한 부분은 검은색 화강석의 벽이 위치한다. 이 벽에는 희생자들의 이름들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으며, 베트남 참전 당시 사망하거나 실종된 시간의 순서로 58,000여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그림 3-7> Vientiane War Memorial Washington D. C 의 전경 ²¹

2. 건축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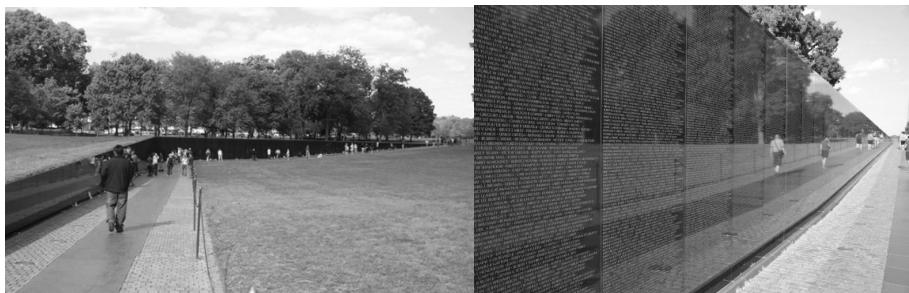
Maya Lin 은 디자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추모관을 만들고자 하였다. 1982 년 11 월 13 일에 공개된 이 기념관에는 오직 기념비만 존재한다.

²¹ 사진출처(<https://www.vanityfair.com/>)

지상에 특정한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랜드스케이프를 이용하여 단순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58,000 여명의 미국인들의 이름이 전사 시간 순으로 적혀져 있다.

²² 이름이 적혀진 기념비는 거울처럼 반사되는 검은 화강석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휴먼스케일의 기념비를 직접 만지고 화강석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재료적 표현에 더하여 주변의 지형 레벨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산책로를 따라 화강석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 화강석에 비쳐진 자신을 바라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림 3-8> Vientian War Memorial 기념비 ²³

²² 이건섭, 『20 세기 건축의 모험』, 수류산방:중심, 2005년

²³ 사진출처 (<https://www.asu.edu>)

제 4 장 소결

지금까지 4.3 의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Memorial 과 Monument 의 의미가 변화한 과정에 대해 정리하였다.

4.3 의 의미를 더욱 더 강조하기 위해 역사성과 장소성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그에 따른 사례분석을 통해 어떠한 건축적 요소로 표현될 수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과거의 아픔을 표현한 memorial 의 사례를 통하여 본 역사성과 장소성은 그 흔적을 그대로 두어 그 의미를 극대화 시키거나 자연적인 지형을 통하여 그 의미를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축적 표현으로 그 의미를 더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현재 대상지의 의미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극적으로 추모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으며, 다양한 감각과 요소들이 더하여 그 당시 아프고 슬펐던 4.3 의 의미를 부각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로써 4.3 기념관을 조성하기 위해 학살터라는 의미와 더불어 장소성의 요소를 남김으로써 그 의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를 사용하여 현재 기념관에서 새로운 기념관을 조성하려한다.

제 5 장 대상지 분석

제 1 절. 대상지 현황

1. 대상지 현황



<그림 5-1> 너븐송이 현황

대상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위치한 너븐송이 4.3 기념관 주변이다. 현재 기념관을 비롯하여 주변으로 위령제단, 애기무덤 터, 순이삼촌 문학비 등으로 조성되었다. 사이트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30M 대로인 일주도로가 있으며, 사이트 남쪽으로는 올레 19 코스가 있으며, 제주 4.3 의 길을 시작과 끝 점으로 하여 4.3 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광적인 요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2. 너븐승이의 문제점



<그림 5-2> 너븐승이 기념관 조성 현황

현재 이곳은 너븐승이 4.3 기념관을 위해 조성된 곳이다. 이 곳은 애기무덤을 제외한 기념관과 위령제단, 순이삼촌 문학비는 기념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나마 남겨진 애기무덤은 역사성과 장소성을 유일하게 담고 있지만 앞에 안내판이 없으면 의미를 모를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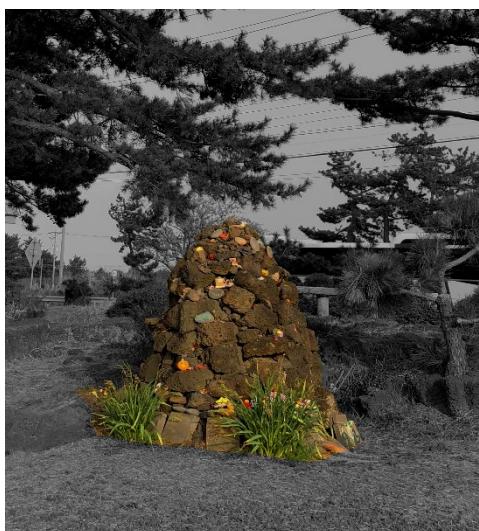
<그림 5-3> 너븐승이 기념관 파노라마 이미지

역사성과 장소성이 뚜렷한 너븐승이의 의미를 점차 잃어버리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너븐승이의 의미를 담아 기념관을 다시 한번 조성하려 한다.

제 2 절 대상지의 역사성과 장소성

현재 대상지는 4.3 사건 당시 최대 피해마을로 단 하루만에 300 여명이 희생되어 무차별하게 시체들이 버려진 곳이다. 그 당시 제노사이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이 곳 북촌리 너른송이 터는 4.3 사건 당시 최대 피해 마을이라는 역사성의 의미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장소이다.

역사성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학살 터라는 의미만 있고 그 당시의 흔적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곳에는 보이지 않는 흔적들이 있다. 아직도 발굴되지 못한 8 구의 시신이 여전히 묻혀있고 흔적을 보여주기 위해 지상에 <그림 5-4>와 같이 얘기무덤으로 사람들이 후에 만들어 두었다.



<그림 5-4> 얘기무덤

이런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흔적으로 얘기무덤으로 판단되며 이것이 흔적을 남겨 그 장소만의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인 장소성의 의미를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된다.

이에 역사성과 장소성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얘기무덤을 중심으로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면서 4.3 당시 벌어졌던 끔찍한 학살의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후대에 4.3 사건에 대한 의미를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의 기념관을 조성한다.

제 6 장 기념관 계획안

제 1 절. 기본계획

1. Design Process

4.3 이라는 특정한 사건에 따라 그 당시 직접 피해입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증언과 현기영의 순이삼촌이라는 소설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과거의 시간에 따른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공간화 한다.

4.3 진상보고서는 4.3 사건 피해자들의 증언과 관련자료를 토대로 2003년 10월에 만들어졌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여기에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시대적 상황과 사건의 흐름을 요약할 수 있었으며, 추가로 순이삼촌이라는 소설에서 4.3 당시 북촌 대학살에 대한 사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가. 시간대 별 순서

위의 서술된 기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심리와 시대적 상황을 요약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시간	내용	감각
북촌 대학살 전	4.3 사건 빨발로 혼란스럽고 경찰과 군인들에게 억압당하며, 조용하게 살고 있었다.	억압, 고요, 두려움
대학살 당시	피해자 대부분은 운동장으로 끌려갔고 학교 운동장에서 총살이 시작되었다.	두려움, 공포, 고통
대학살 후 - 현재	북촌 대학살 후 빨갱이라는 오해로 말할 수 없었던 답답함	한, 슬픔, 고통, 화해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과 희생자의 유족들은 시체를 찾지 못했다는 한과 현재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아픔	

<표 6-1> 북촌대학살 당시 피해자 증언

위와 같은 감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현재 사이트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한다.

나. 기존 대지의 변경

본 계획안의 중점은 애기무덤을 이용하여 하나의 연결된 기념관을 조성하는 것이다. 애기무덤을 이용하여 분산된 현재의 기념관을 하나의 기념관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기념관 조성사업으로 기념관 외에 추모시설들이 있기는 하나 각각 분산되었다. 그리고 애기무덤과 기념관 사이에는 마을로 진입하는 5M 도로가 존재하여 두개의 대지로 나눠져 보인다. 이렇게 도로를 가운데 만들면서 하나의 기념관으로 보이지 않아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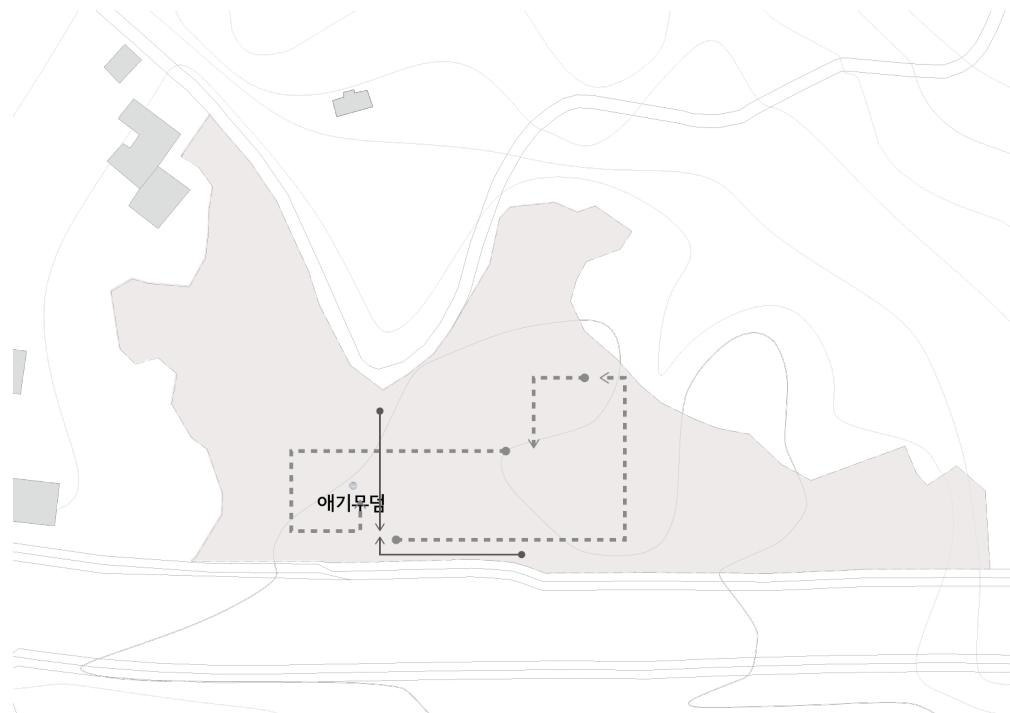
<그림 6-1> 현재 애기무덤과 기념관 사이 도로

이러한 흐름을 다시 하나의 대지로 만들면서 대지가 하나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 곳 애기무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4.3 당시의 흔적이 아니므로 애기무덤만 보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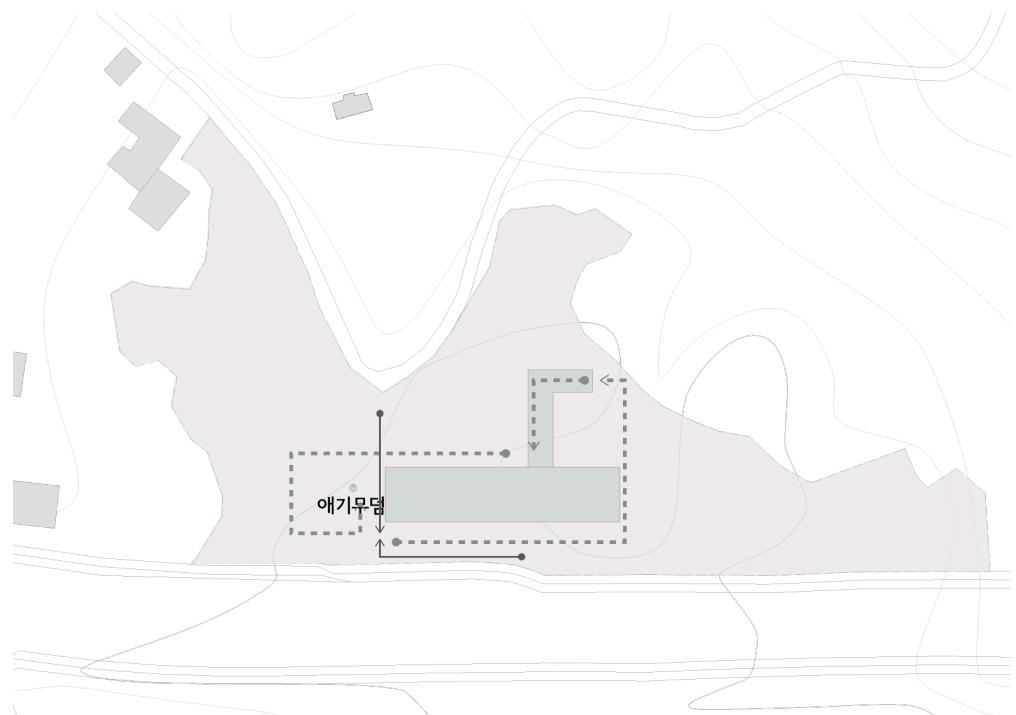
<그림 6-2> 변경 후 대지 경계선

2. 동선계획



<그림 6-3> 내부와 외부 동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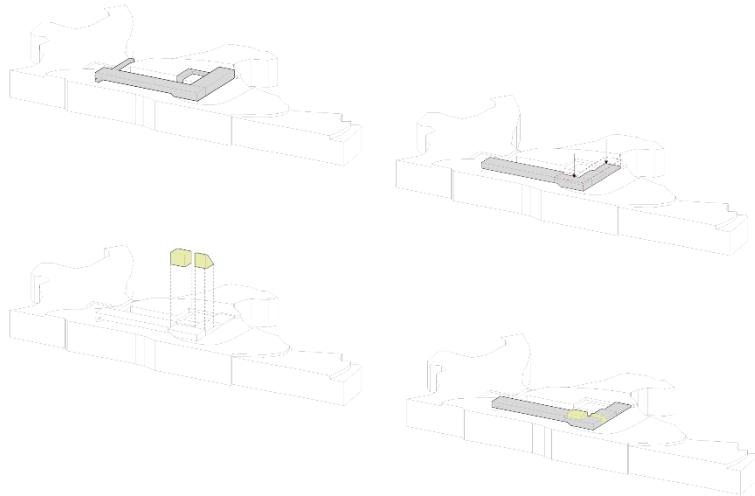
하나의 대지로 조성된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연결하는 요소로 동선을 이용하였다. 우선 올레 19 코스와 4.3 의 길이 지나가는 곳에서 보행자 동선을 생각하였으며, 자동차를 이용한 이용자들은 도로에서 진입가능한 동선을 생각하였다. 여기서 진입하고 내부전시공간으로 진입한다. 이 과정에서 램프를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동선을 계획한다.



<그림 6-4> 동선 다이어그램

3. 배치 및 평면계획

가. Mass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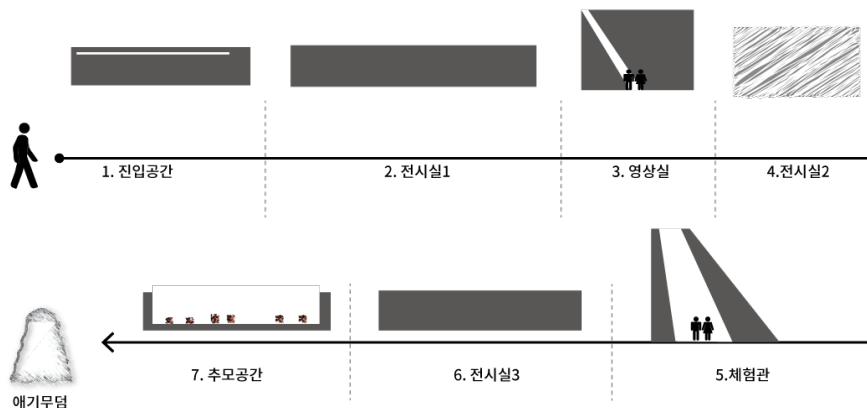


<그림 6-5> 배치 다이어그램
(좌측 첫번째부터 순서대로 1-2-3-최종매스)

먼저 내부전시공간의 매스는 앞서 설명한 동선에 따라 배치하며 램프를 따라 내려가는 자연스러운 공간의 연결을 위해 레벨차이를 이용하여 각 프로그램 별로 단차를 두었다. 그리고 전시 프로그램 외 영상실과 체험실의 공간을 새로 삽입하여 현재의 매스형태로 만들었다.

나. 공간 시나리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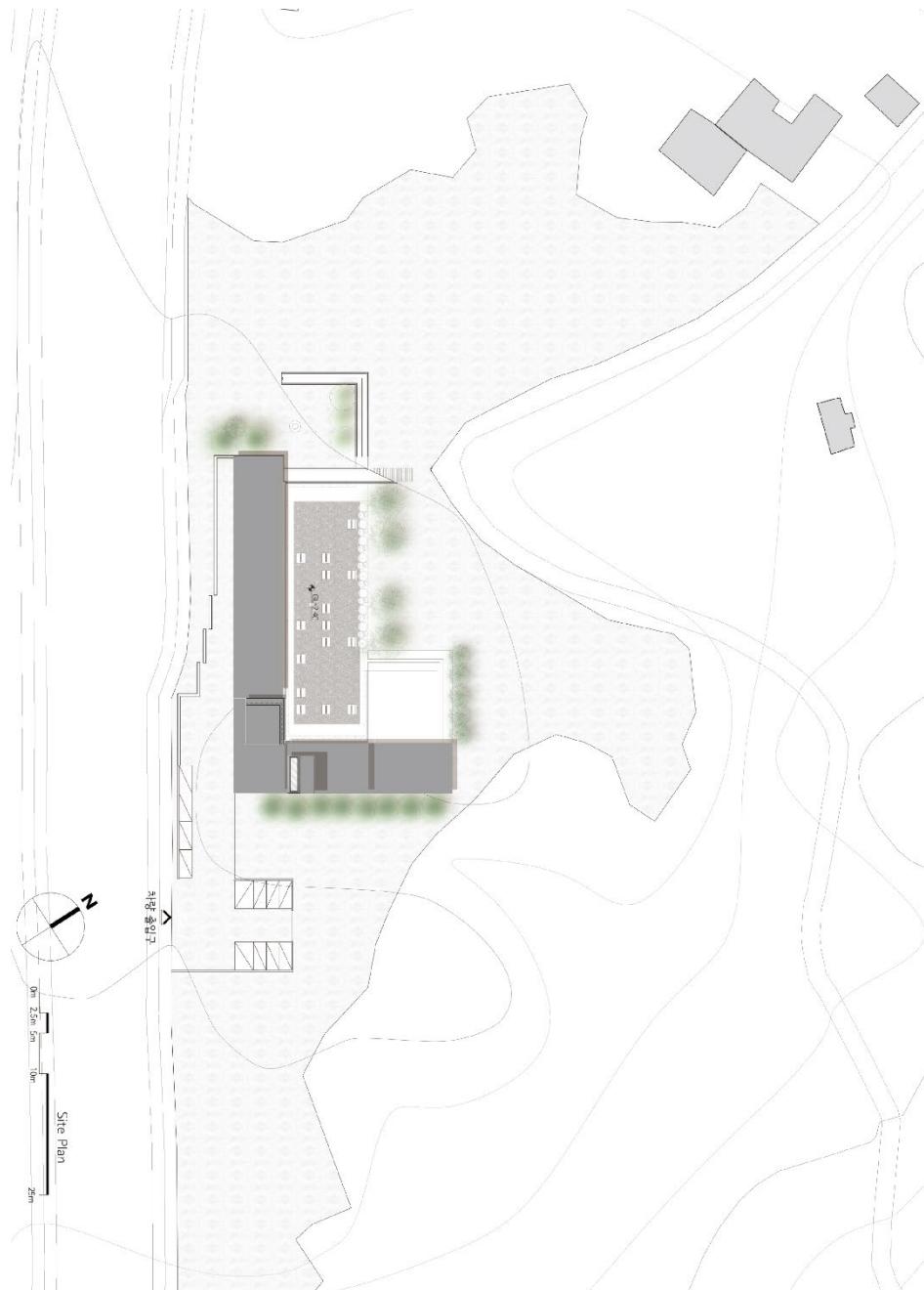
공간의 시나리오는 앞서 증언의 순서에 따라 그 감정들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우선, 전시공간의 프로그램 배치는 진입공간 – 전시실 1 – 영상실 – 전시실 2 – 체험관 – 전시실 3 으로 이어지는 동선으로 계획하였으며, 이 후 전시실 3 에서 반 외부적인 통로를 지나 외부에 조성된 추모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그림 6-6> 공간 시나리오 계획

제 2 절 최종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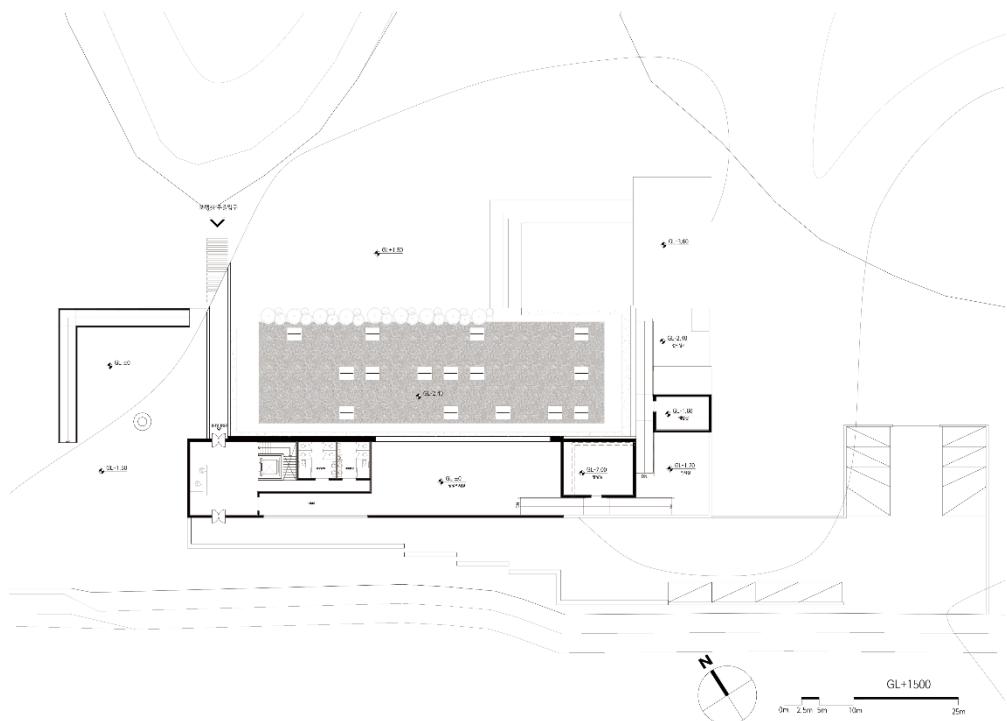
1. Site Plan



<그림 6-7> Site Plan

2.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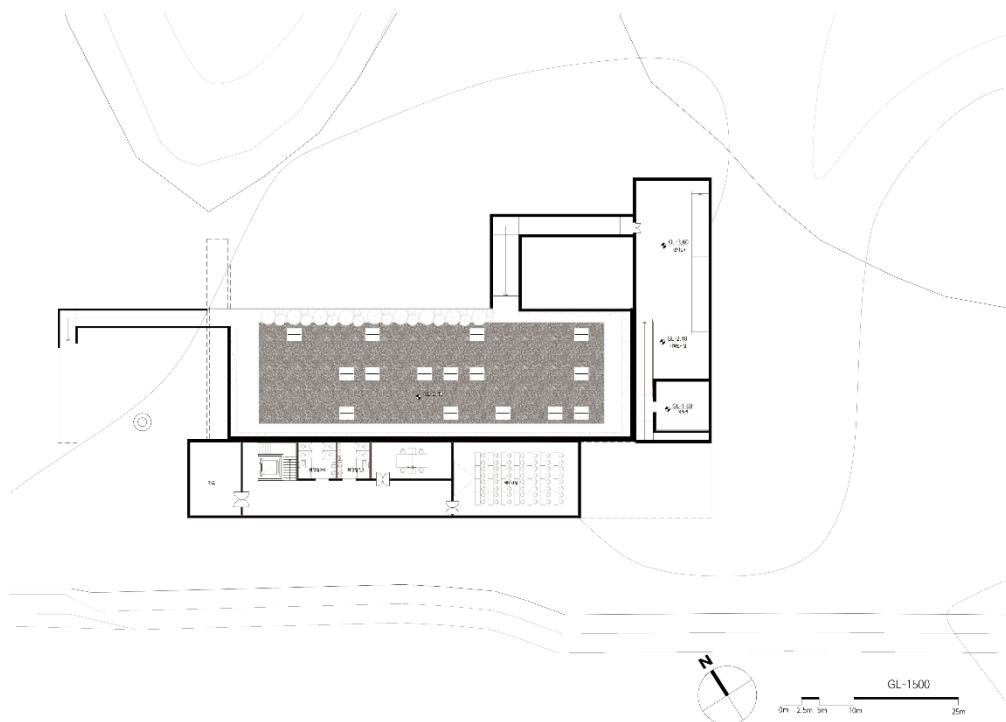
가. 지상층 평면도



<그림 6-8> 지상층 평면도

애기무덤을 중심으로 조성된 기념관은 애기무덤을 보면서 진입로를 따라 전시장으로 출입하며, 전시장을 들어오면 진입통로에서 본격적으로 전시가 시작되는 4.3 의 전반적인 내용이 설명되는 전시관으로 진입한다. 좁은 진입공간을 지나서 어둡고 넓은 전시실 1 로 이어진다. 이 후 이어진 램프를 통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동선을 따라 곧아보면 청각적인 요소가 더해진 영상실이 나오며 감정이 극대화되는 체험을 하기된다.

나.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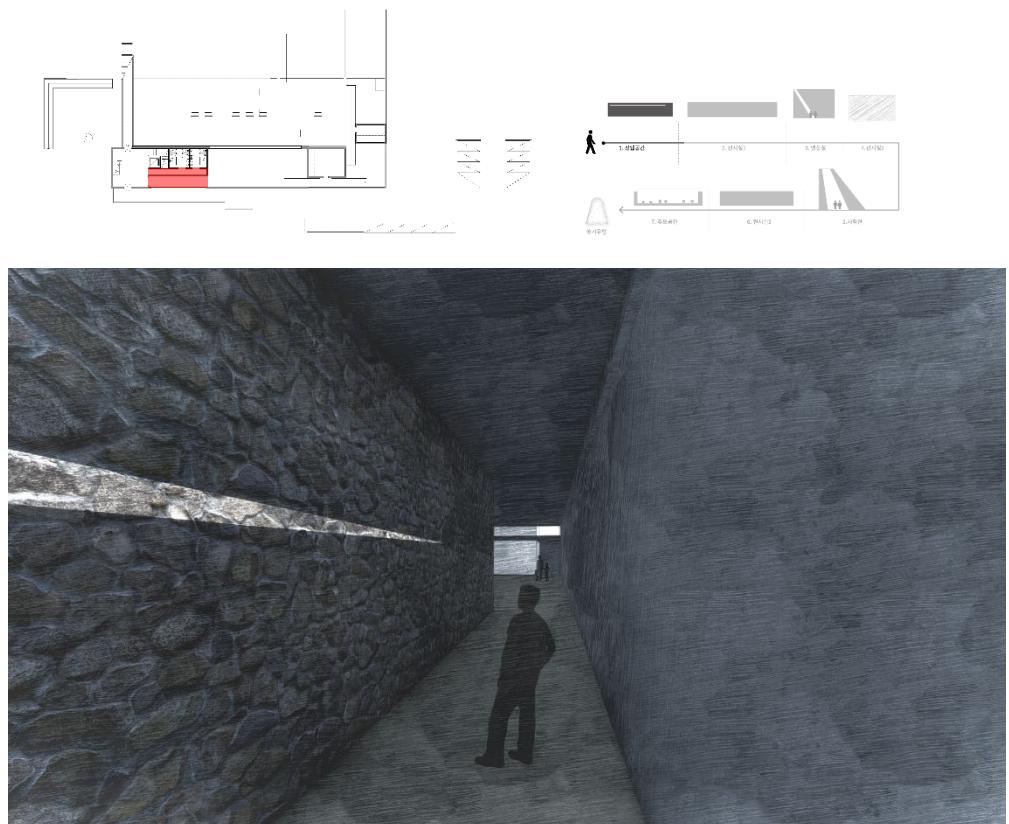


<그림 6-9> 지하층 평면도

감정을 극대화 시킬 영상실을 지나다 보면 북촌 대학살의 처참함을 볼 수 있는 전시실 2 가 나타나며 여기서도 다시 램프로 지나가게 된다. 램프로 지나다 빛이 들어오는 사선의 공간에 들어가게 되며, 여기서는 그 당시 간절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나타난다. 이후 지하로 내려가는 경험을 하며 추모공간에 도달하게 된다.

3. 공간 별 시나리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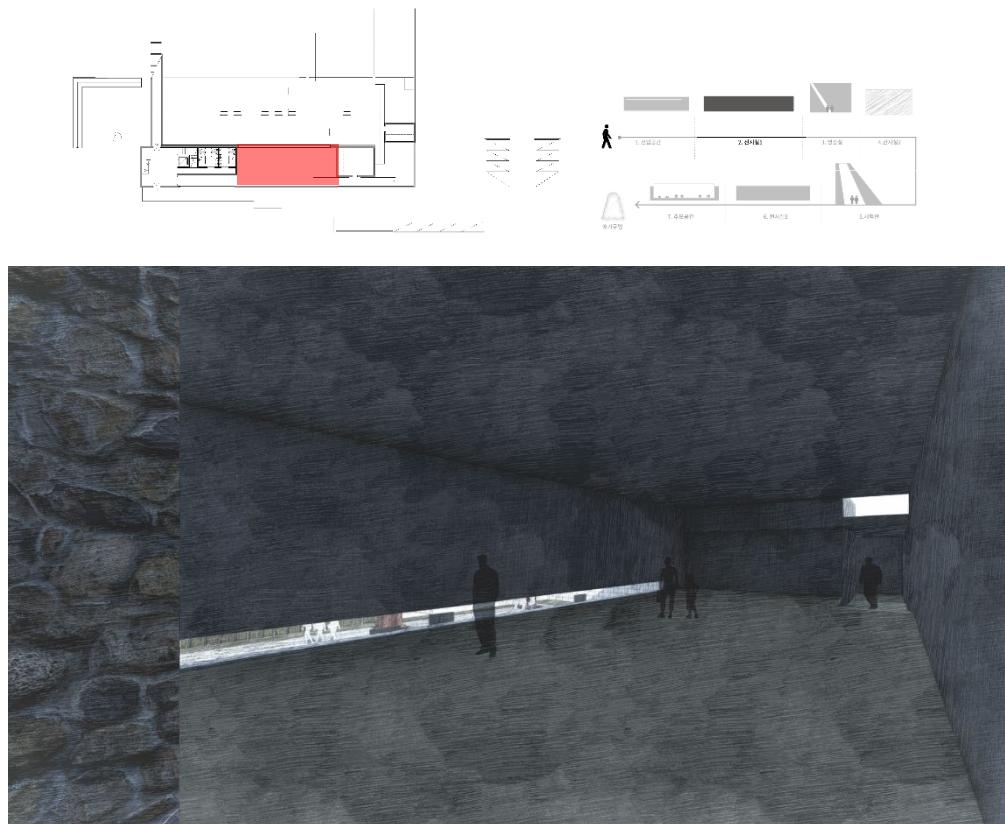
가. 진입공간(GL+0)



<그림 6-10> 진입공간

본격적으로 4.3 으로 진입한다는 의미로 4.3 당시 학살터로 끌려가던 피해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당시 증언을 토대로 총으로 위협하고 불을 지르며 운동장으로 모이라고 한 군인들의 억압된 상황을 보여주는 곳으로, 그 곳으로 끌려가던 피해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제주도의 상징인 올레길을 상징할 수 있도록 좁고 돌담벽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은 한줄기의 빛이 미세하게 사라지면서 어두운 공간으로 진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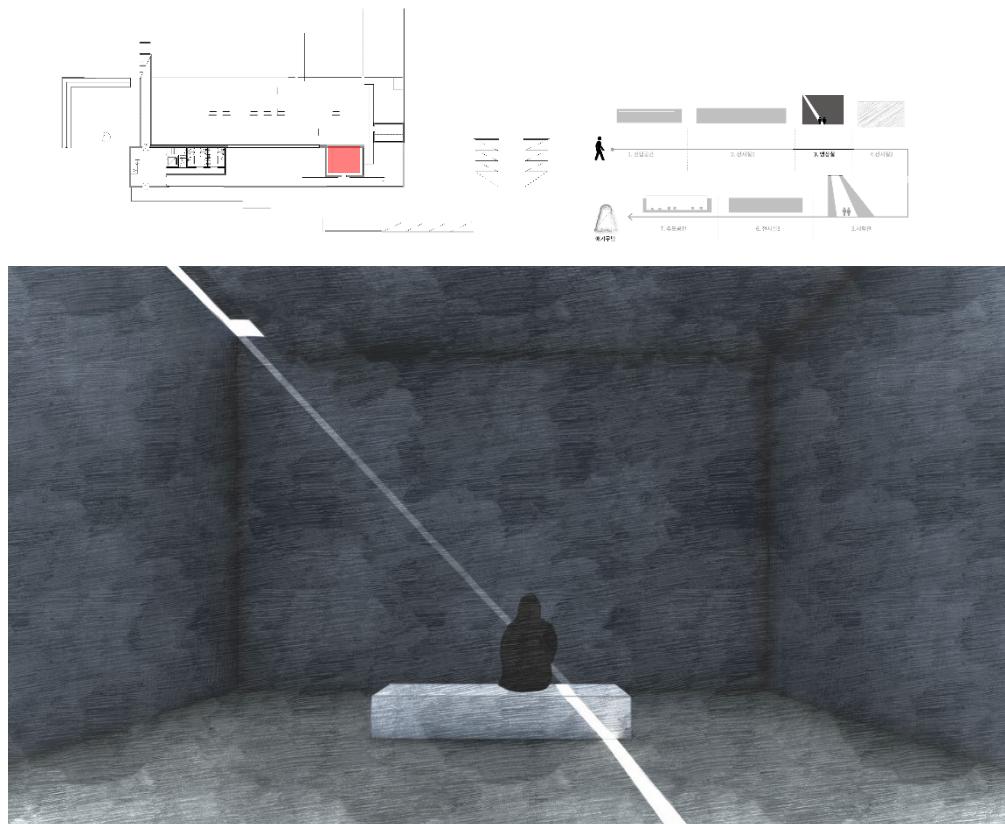
나. 전시실 1(GL+0)



<그림 6-11> 전시실 1

진입공간을 통해 들어가면 억압당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던 4.3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관이 나타난다. 이 곳은 어두웠던 제주도의 당시 상황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교육 목적의 전시가 이루어지며 진입공간에서 이곳으로 들어오면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공간으로 당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을 관람자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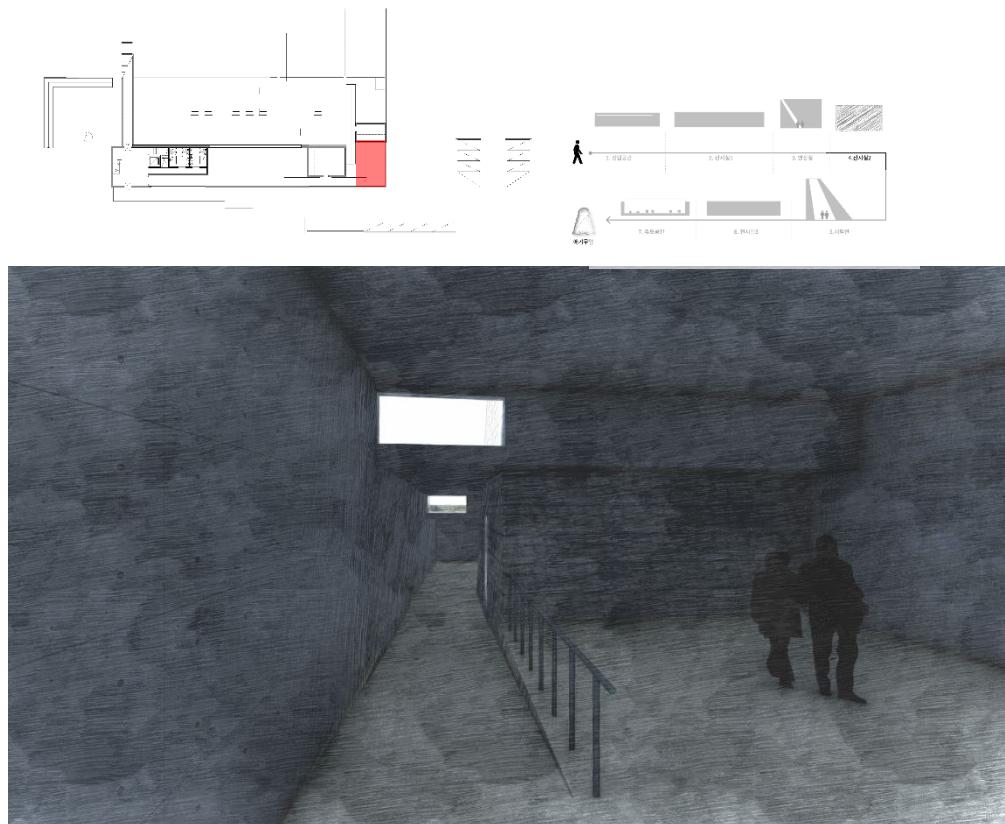
다. 영상실(GL-7.00)



<그림 6-12> 영상실

전시실 1 을 지나 램프를 내려가다 보면 영상실에서 나오는 총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곳을 지나면서 볼 수 있는 빛은 천창에서 내려오는 한줄기의 빛으로 사선으로 내려온다. 여기서 빛이 사선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그 당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되었으며, 총소리로 당시 상황을 극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 여기를 지남으로써 4.3 당시 일어나면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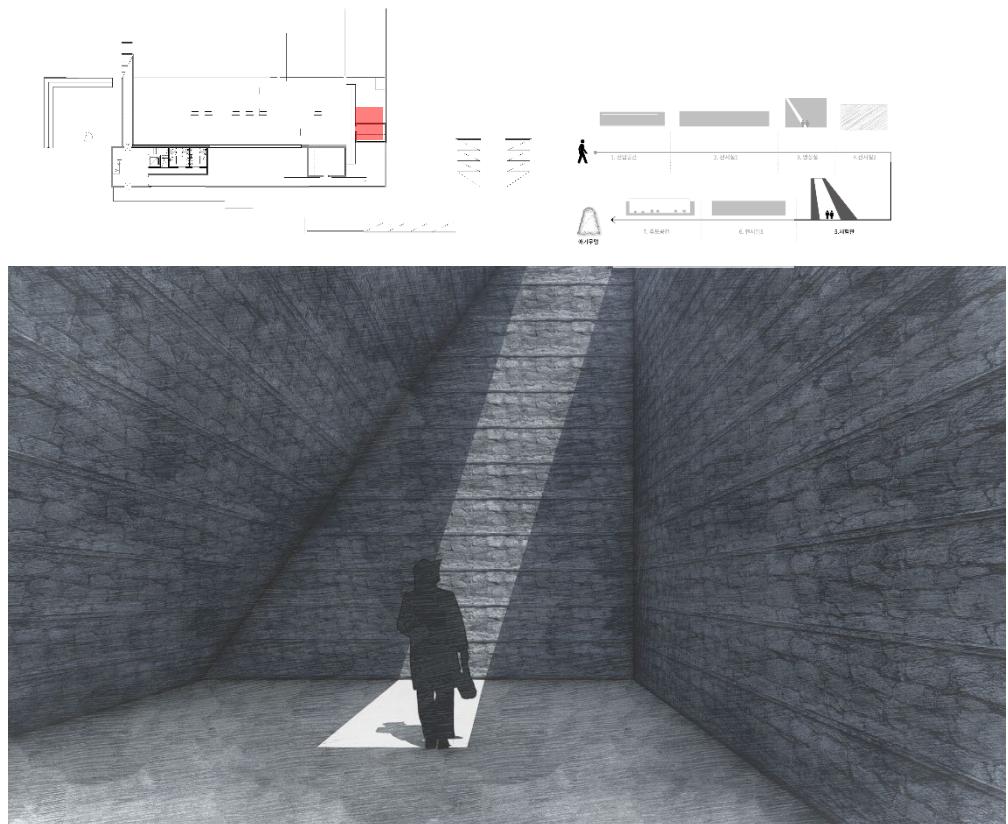
라. 전시실 2(GL-1.20)



<그림 6-13> 전시실 2

영상실에서 나와 벽으로 둘러 쌓인 이 공간은 4.3 사건 당시의 아픔을 충분히 영상실까지 느끼고 더 감정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북촌 대학살 당시의 아픔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이 공간은 모든 벽이 상처 난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도록 벽면에 거친 재료들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더하여 북촌대학살의 이야기를 담아 피해자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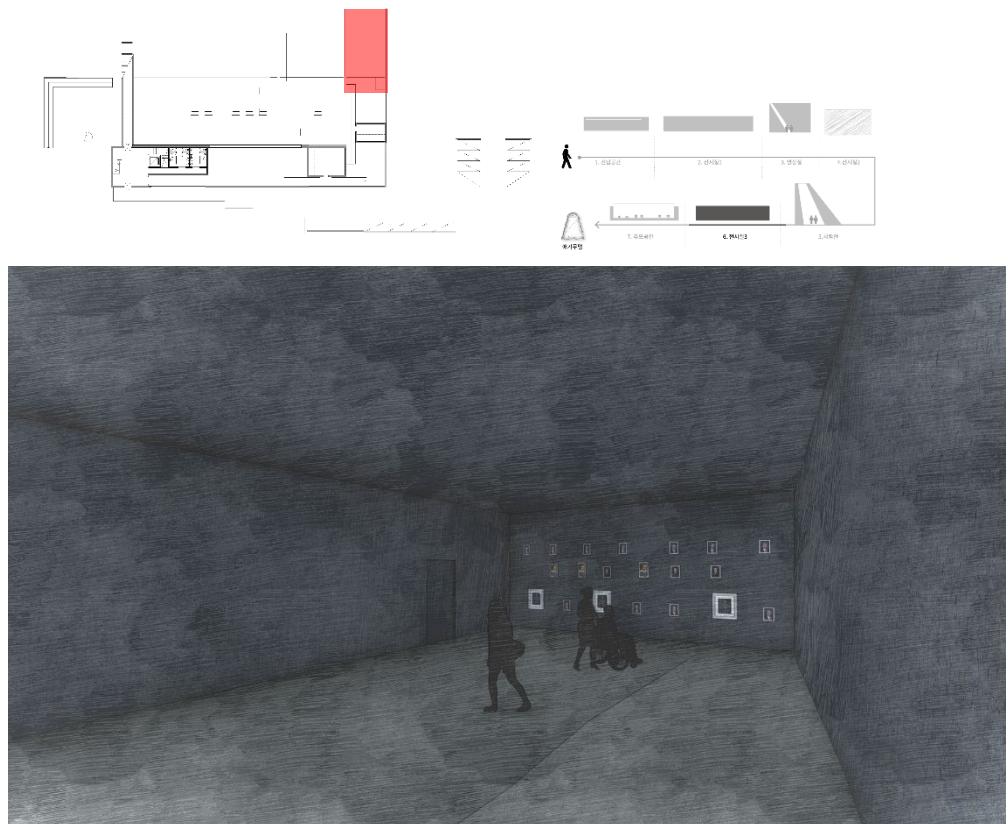
마. 체험관(GL-1.60)



<그림 6-14> 체험관

북촌 대학살의 아픔을 느끼고 나서 다시 램프를 따라 내려가면 사선 벽과 천창으로 내려오는 빛을 마주하는 공간이 나온다. 이 공간은 천창에서 크게 떨어지는 빛이 가운데 내린다. 이것은 대학살 당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앞서 영상실보다 크게 빛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나 결국 궁지에 몰려 죽음을 당하는 그 당시 피해자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 한쪽 벽이 사선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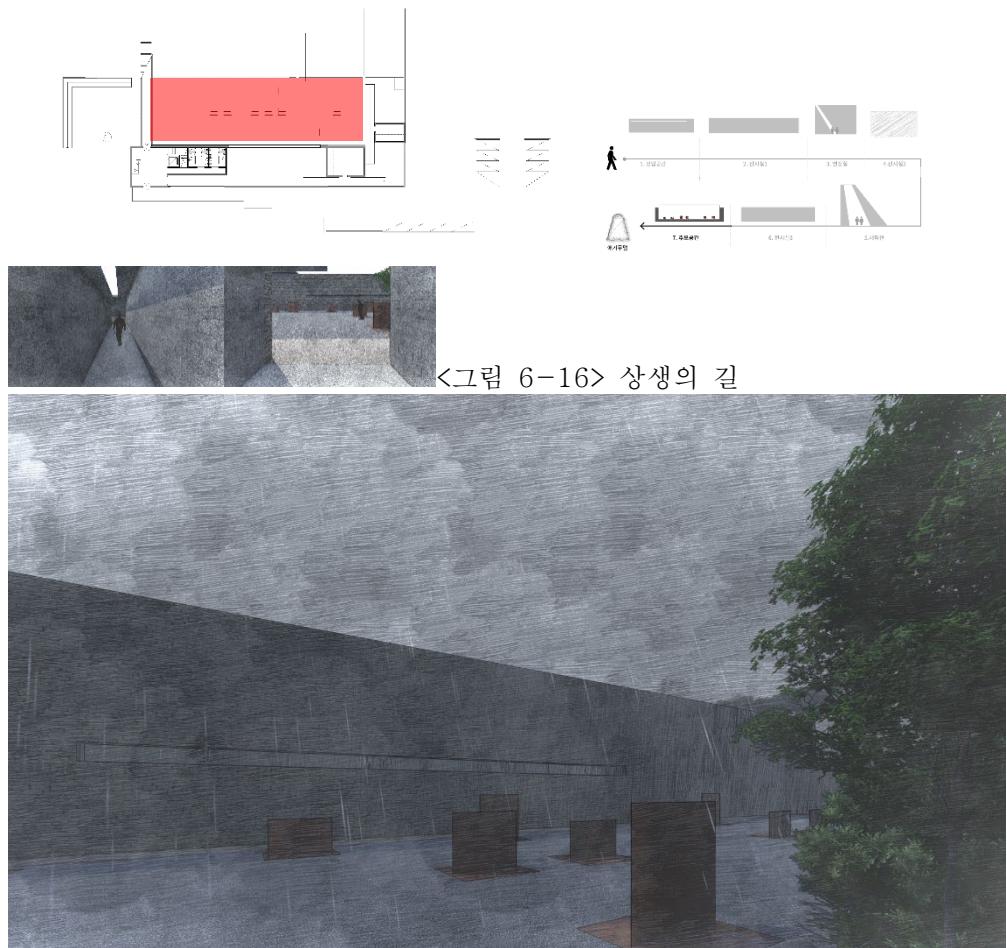
바. 전시실 3(GL-3.60)



<그림 6-15> 전시실 3

체험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느끼고 난 후 내려오면 사진 액자들이 붙여 있는 공간에 도달하게 된다. 내부공간의 마지막 전시실에 도착하면 보이는 사진은 현재 아픔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춰진다. 이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건의 처참함을 더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이후 이어지는 추모공간을 가기 전 사건의 처참함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추모의 마음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내부공간의 마지막 공간이다.

사. 추모공간(GL-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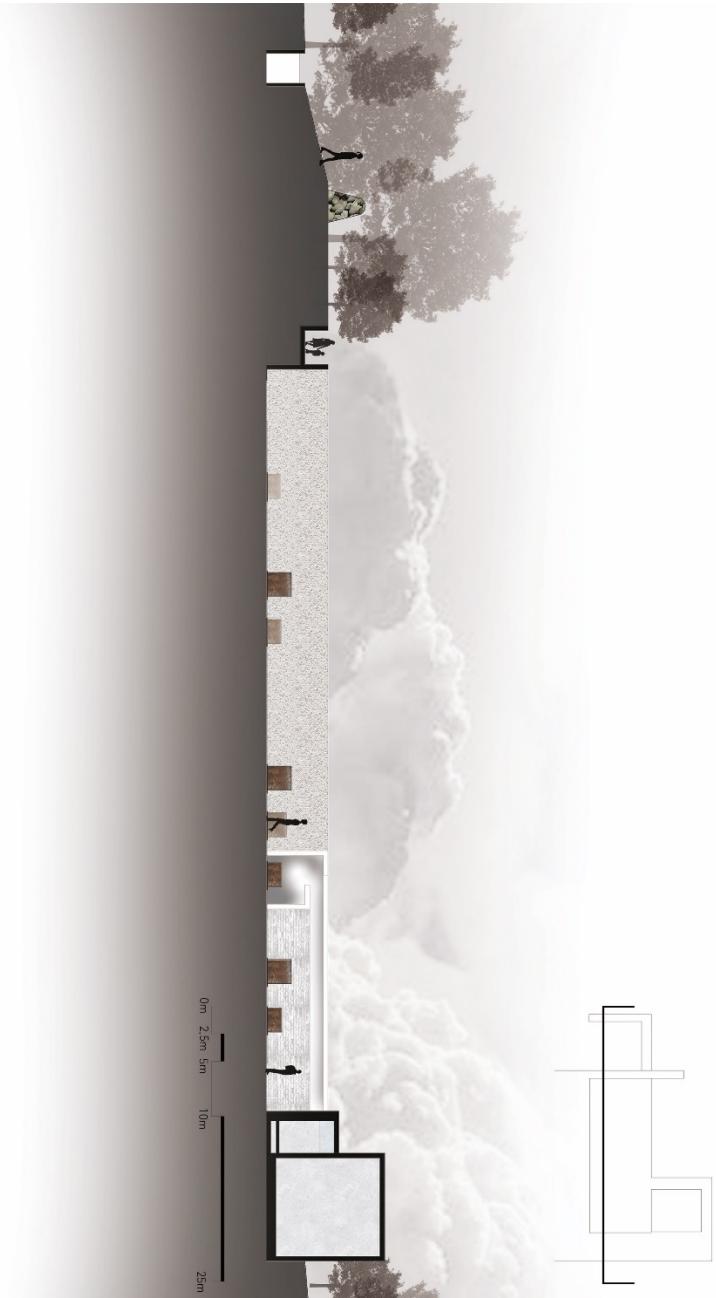


<그림 6-17> 추모공간

내부공간을 나오면 그림 6-17에서 보이는 통로를 볼 수 있다. 이 길은 완전한 외부공간이 아닌 내부와 외부를 이어주는 통로이다. 빛과 공간의 너비로 동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내부와 외부의 매개공간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로서 도달하는 공간이 추모공간이다. 추모공간은 중언의 벽과 부식된 철에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으로 구성된다. 이곳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진 공간을 보면서 당시 이유없이 학살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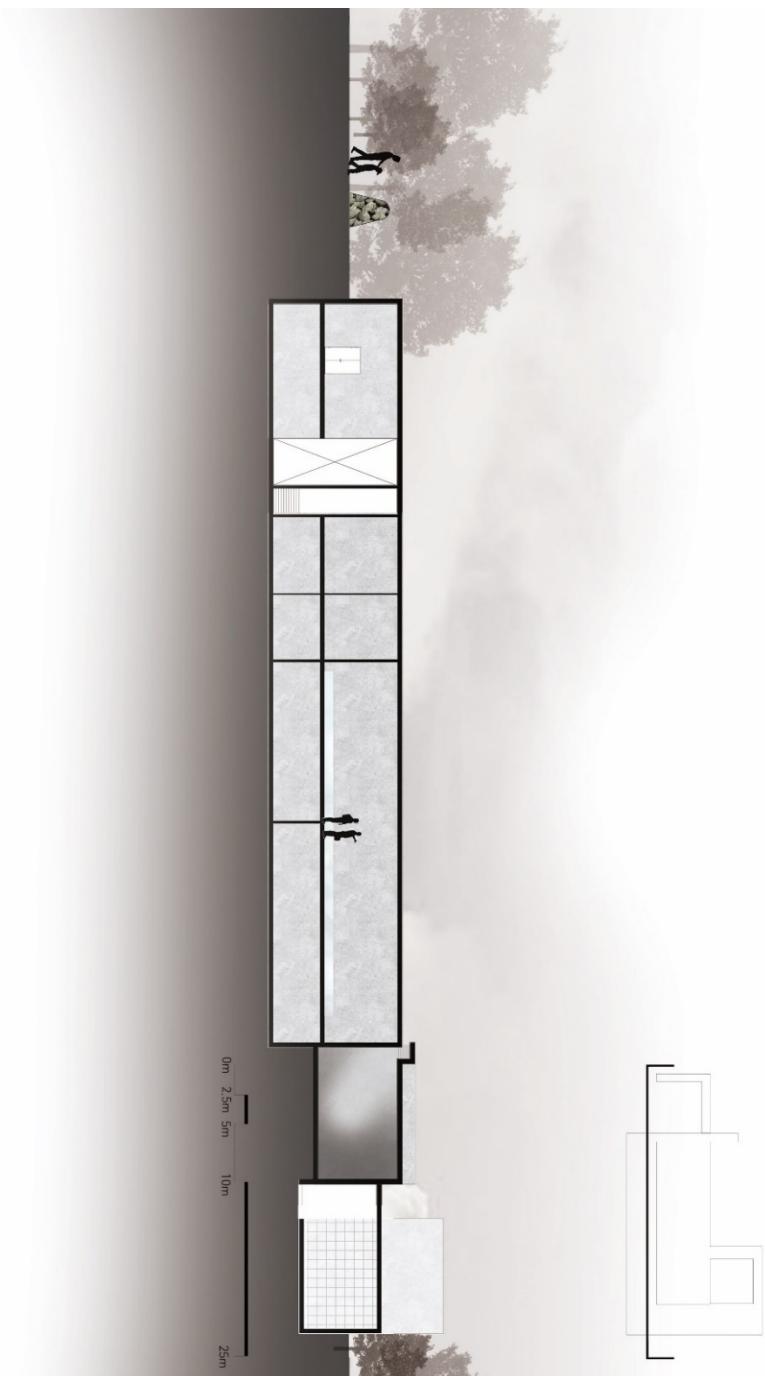
4. Section

가. A-A'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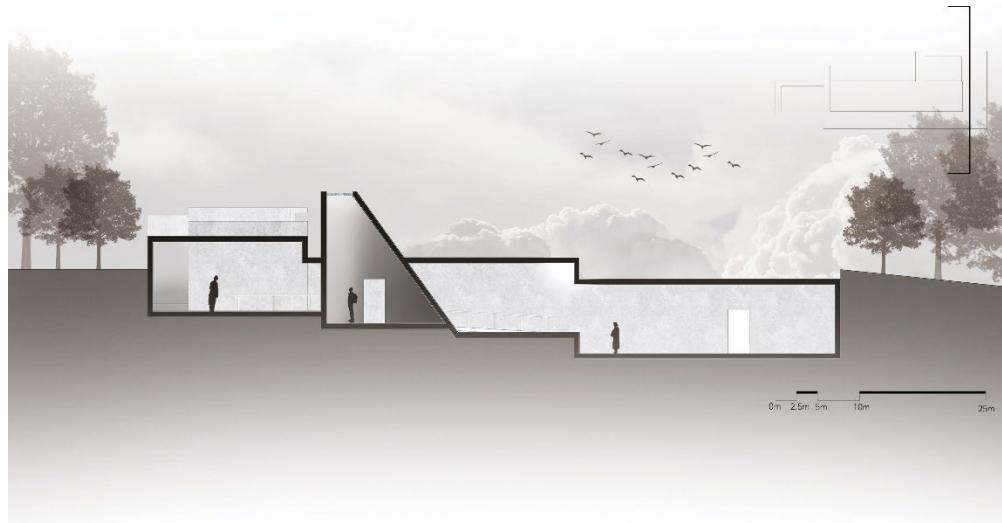
<그림 6-18> A-A' 단면도

나. B-B'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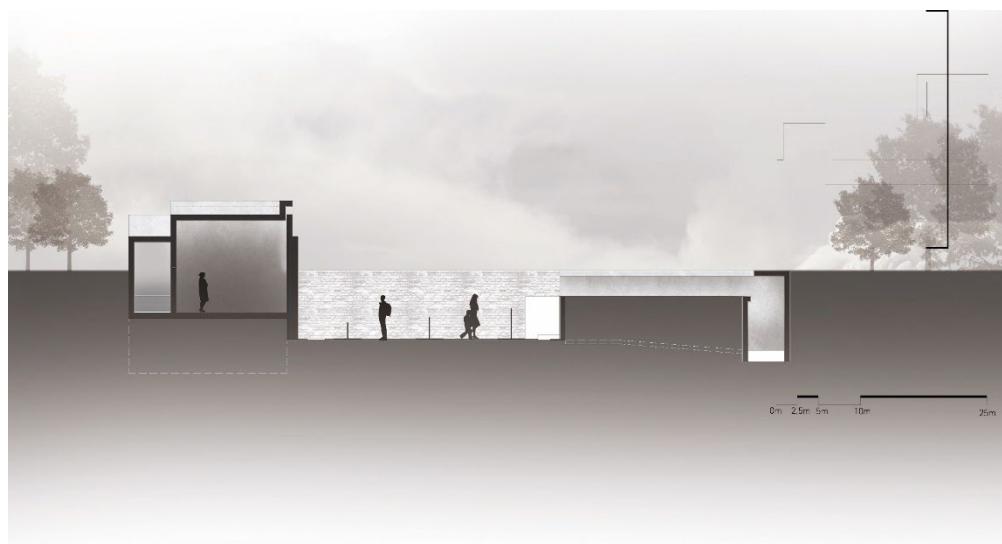
<그림 6-19> B-B' 단면도

다. C-C' 단면도



<그림 6-20> C-C' 단면도

라. D-D' 단면도



<그림 6-21> D-D' 단면도

5. 외부 투시도



<그림 6-22> 애기무덤에서 바라본 기념관



<그림 6-23> 기념관 진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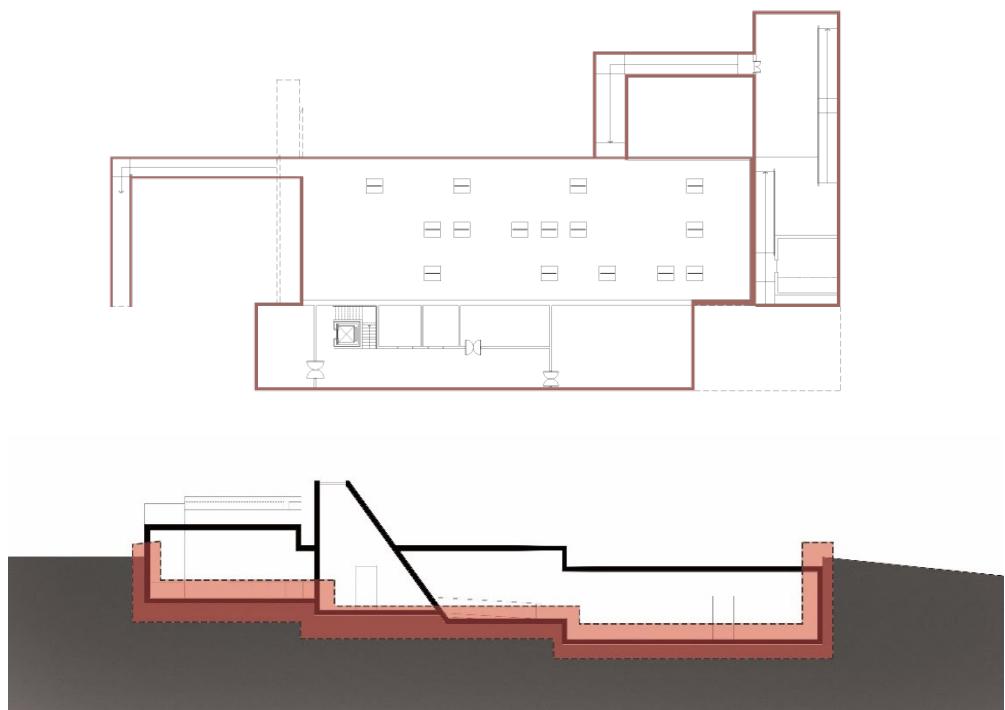
제 3 절 통합설계

1. 구조계획

가. 지하층 외벽 계획

자연스러운 지하 공간으로 유도하면서 일부 공간이 지하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토압에 의한 외벽의 처짐이나 횡력을 막기 위해 외벽의 두께 및 재료가 중요하였다. 이에 지하층이 생기며 다른 전시관보다 좁은 전시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기둥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다.

건축물의 기본구조로 기둥을 적게 쓰기 위해 RC 구조로 사용했으며, 지하층 벽의 두께는 일반 벽보다 두껍게 하여 500mm 두께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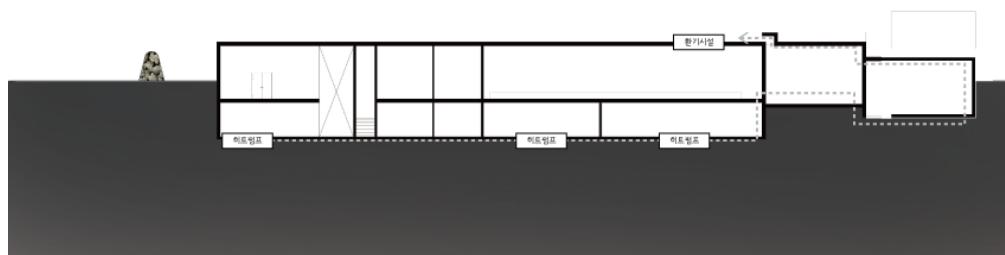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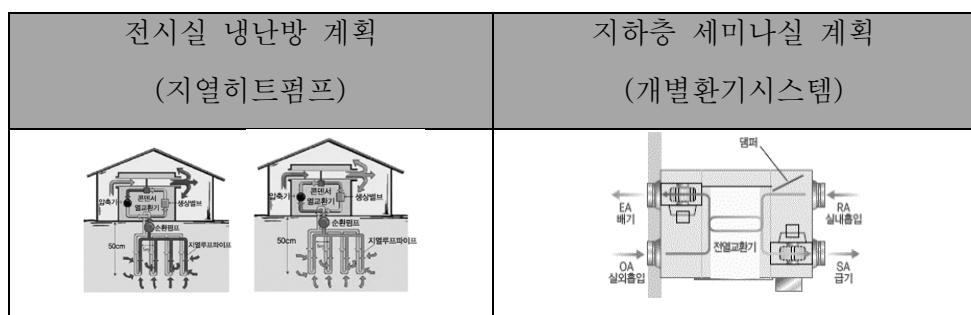


<그림 6-24> 통합설계-지하층 외벽

2. 냉난방 및 환기계획

본 계획안의 냉난방 계획은 주로 내부는 전시공간으로 이용되는 특성상 주변 환경을 최대한 이용한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을 계획하였다. 이 시스템은 냉방 시에는 히트싱크로 난방 시에는 히트소스로 하여 건축물의 냉난방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복합형 시스템이다.

환기계획은 결로방지를 위해 각 실마다 개별 환기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지하층 세미나실과 사무실도 앞서 서술한 환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배기시스템도 별도의 실을 두어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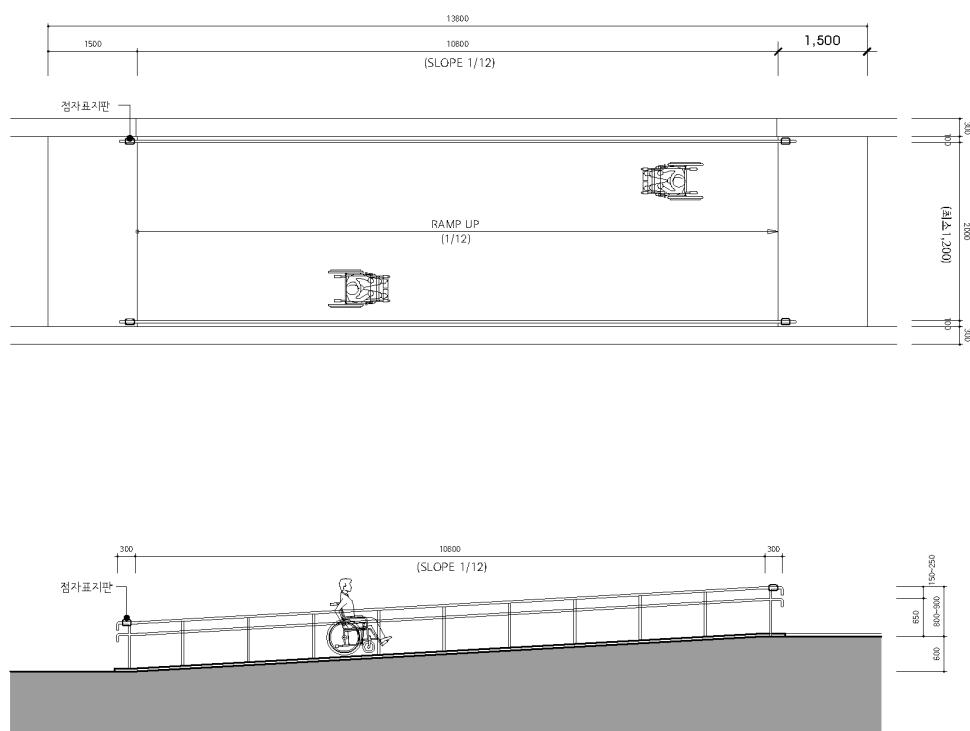


<그림 6-25> 통합설계-냉난방 및 환기

3. 무장애 및 피난 계획

가. 장애인 경사로

동선을 위해 지하로 내려가는 동선을 램프로 모든 공간을 연결하였다. 장애인 휠체어의 원활한 경사로 이용을 위해 폭 2000mm에 1/12의 경사로를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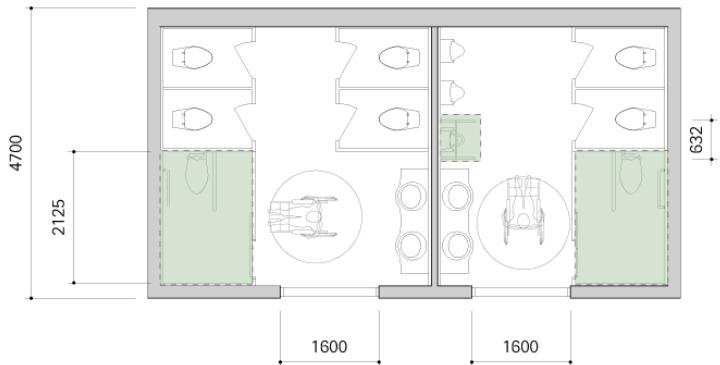


<그림 6-26> 통합설계-장애인 경사로

나. 장애인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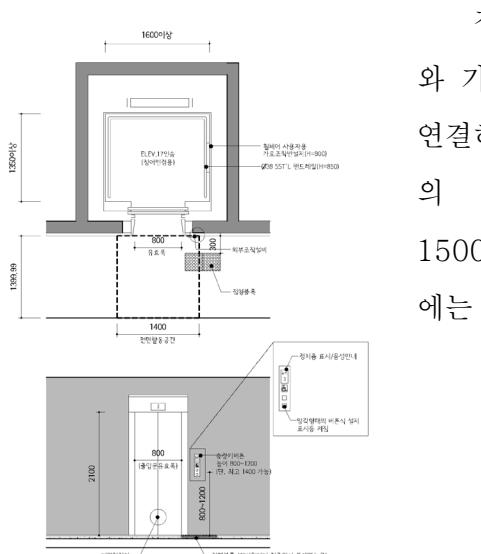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출입문과 제일 가까운 곳에 계획하였으며, 지하 세미나실의 이용을 위해 1 층과 지하층에 위치한다.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별도의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 보다 가능하면 일

반 남·여 화장실 내에 각각 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
이 좋다.²⁴



<그림 6-27> 통합설계-장애인 화장실

다. 장애인 승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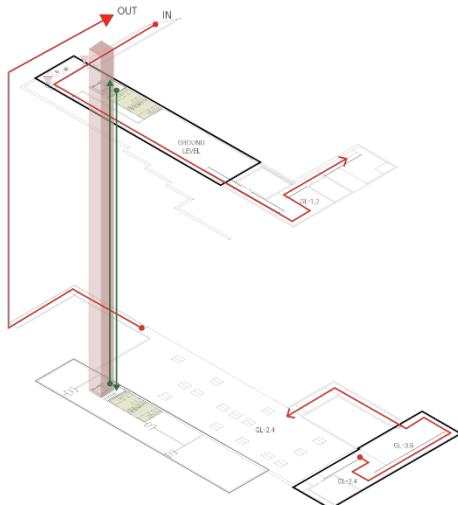
장애인 승강기의 경우 주 출입구
와 가까운 위치에 접근 가능한 통로와
연결하여 설치한다. 출입문은 활동공간
의 법적 최소기준은 1500mm X
1500mm 이상이여야 하며 출입문 앞
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그림 6-28> 통합설계-장애인 승강기

²⁴ 강병근, 『2016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개정』, 건국대학교, 2016년.

라. 피난 계획

주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계단을 만들어 피난용 직통계단을 설치한다. 이로서 수직동선이 형성되며, 전시관에서는 2 개의 출입구가 형성되어 가까운 출구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지하층에서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램프가 있어 쉽게 유도가 가능하다.



<그림 6-29> 통합설계-피난동선

제 7 장 결론

본 계획안은 제 70 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성과 장소성의 의미가 담겨진 너븐승이를 중심으로 4.3 사건의 아픔을 알리는 목적이 있다. 현재 이곳은 4.3 당시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기념관이 조성되어 있긴 하나 기념관의 기능적 목적에만 치중하여 4.3 당시의 가장 큰 피해마을인 이곳의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상징하는 작은 무덤 하나만이 덩그러니 위치하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과거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다.

새롭게 제안하는 이 기념관에서는 설계자가 공간마다 북촌 대학살 당시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한 공간을 경험한다. 추모공간을 방문하는 목적은 과거를 반성하고 아픈 사건을 되새기면서 공감하고 함께 과거를 치유하는 목적에 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공간마다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공간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추모공간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점차 지하로 내려가면서 어두워지고 천창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빛이 들어오고 재료적인 표현이 더하여 그 당시를 더 느낄 수 있도록 하여 4.3 을 잊지 말아야한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다.

현대의 기념관은 과거에 상징적인 오브제가 그것을 대신하던 것과는 달리 설계자의 의도가 담겨 체험하고 공간마다 과거와 소통하도록 동선에 따른 다양한 시퀀스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시퀀스를 갖고 건축물의 진입부터 마지막 출구까지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써 연결되어 추모라는 행위를 완성하는 건축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현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도서출판 선인, 2003.12.15

한갑석, 『한국 현대건축에 있어서 기념비성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2004. 02.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기념”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8.12.15)

네이버, “네이버 지식백과–Monument”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94212&cid=42642&categoryId=42642>>, (2018.12.15)

윤태건, 『사회적 애도를 위한 메모리얼 연구: 그라운드 제로 메모리얼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6.02

윤선영,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과 911 기념관의 전이공간 비교연구』, 인천가톨릭대학교 조교수, 2015.01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역사성”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8.12.16)

안우전, 『건축의 장소성을 체험하는 공간 시퀀스 구조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2003. 08.

정태용, 『리베스킨트의 유태인 박물관에 나타난 건축 개념 비교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2014.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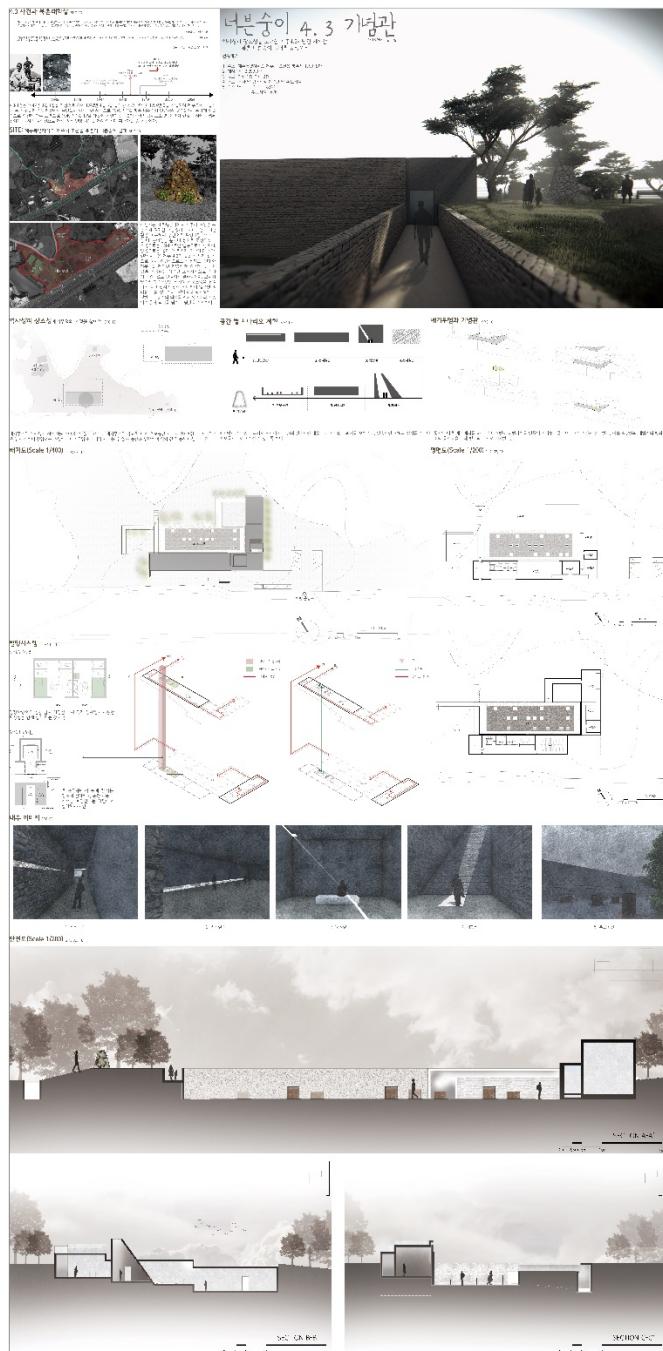
Studio Libeskind, <https://libeskind.com/work/jewish-museum-berlin/>,
(2018.12.22)

홍원표, 『건축적 시나리오를 통한 서대문 독립 명예의 전당 계획안』,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2017. 02

이건섭, 『20 세기 건축의 모험』, 수류산방:중심, 2005 년

강병근, 『2016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개정』, 건국대학교, 2016 년.

부 록



<그림 부록 1> 최종 패널

국문초록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제주 4.3 기념관 계획안 -제주시 북촌리 너븐승이를 중심으로-

제주 4.3 은 1948 년 4 월 3 일부터 1954 년 9 월 21 일까지 제주도에서 일어난 대학살 극으로 남북한의 이념갈등이 발단이 되어 봉기한 남로당 무장대와 미군정과 국군, 경찰 간의 충돌과정과 이승만 정권 당시 벌어진 초토화 작전 및 무장대를 학살한 사건이다.

제주도 동쪽에 해안가를 따라보면 작은 해안마을인 북촌리가 위치해 있다. 곁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마을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슬픔과 아픔이 담겨 있는 곳이다. 사건이 점점 극에 달했을 당시 1947 년 1 월 17 일 북촌리에는 군인 두 명이 무장대의 습격을 받고 사망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군인들이 현재 북촌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불러 모아 400 여 채의 집을 태우고 300 명 이상을 학살하는 등 처참하게 마을을 초토화시켰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끌고 학교 인근 주변 당팟과 현 사이트로 선정한 너븐승이에서 학살을 감행하였으며, 이 학살은 늦은 밤까지 계속되어 하루동안 400 명 정도의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곳이다. 이 곳 너븐승이 터는 학살된 주민들이 이 일대에 무차별하게 임시매장이 되어있던 곳으로 제주 4.3 의 대표적인 장소로 꼽히는 곳이다.

건축은 장소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시각화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소성은 다른 공간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며 그곳만의 강한 개성적인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자신만의 가치를 가진 북촌리는 4.3 의 아픔과 슬픔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된다. 더 깊숙히 들어가보자면 북촌리 너븐승이 터는

대학살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가족과 이웃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남은 사람들의 슬픔을 가진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기억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념관은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흔히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곳이기도 한다.

사건이 일어난지 70 주년이 되는 현재,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 제주 4.3 기념관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자료를 정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억과 긴밀하게 관련된 기념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가 의문이 된다. 이러한 사건을 후대의 우리가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현재 너븐승이 기념관과는 다른 방법의 추모공간과 후세에 알릴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주어 4.3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아픔과 슬픔이 공존하는 이 곳 북촌리의 장소에 담겨있는 너븐승이만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 곳에 기념관을 제안하고자 한다.